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현황 및 요구도 분석

최진숙¹, 진선미², 정혜영³, 하정윤^{1*}

¹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과, ²순천제일대학교 커피바리스타 & 외식조리과, ³순천제일대학교 작업치료과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and Needs of Liberal Arts Education at Junior Colleges

Jin-Sook Choi¹, Seon-Mi Jin², Hye-Young Jung³, Jung-Youn Ha^{1*}

¹Division of Childhood Education, Suncheon-Jeil College

²Division of Coffee Barista & Catering Cooking, Suncheon-Jeil College

³Division of Occupational Therapy, Suncheon-Jeil College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현황, 구성원들의 인식과 요구도를 분석하여 교양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 것이다. 전문대학 교양교육 현황은 국내 전문대학 중 42개 대학(약 30%)을 표집하여 분석하였고, 교양교육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과 요구도는 전남에 있는 A 전문대학 교수와 재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전국 전문대학의 교양학점은 전체 졸업 이수학점 대비 약 7.3%로 나타났다. 교양학점은 직업기초능력과 일반교양, 기타 교양이 유사한 비율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둘째, 전문대학 교양교육에 대해 교수들은 일반교양의 중요성을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양교과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셋째, 전문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구성된 직업기초능력의 중요도-실행도 분석 결과, 교수들은 문제해결능력을, 학생들은 자원관리 능력이 지금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였다. 미래사회의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은 일반대학보다 교양교육의 강화와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목표와 운영에 관한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고, 교양교육과정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대학의 실질적인 지원과 개선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나아가 교양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교육과정 개편, 교수법 개발, 평가 방식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rive policy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beral arts education at junior colleges by analyzing the status of the education and the perceptions and needs of college faculty members. The status of liberal arts education was analyzed by sampling data from 42 colleges among junior colleges in Korea. The perceptions and needs of faculty members for liberal arts education were analyzed by a survey targeting professors and students of A college (anonymous) in Jeonna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credits in the liberal arts area were approximately 7.3% of the total credits required for graduation. The liberal arts education is categorized into three different areas: basic vocational skills, general liberal arts, and miscellaneous liberal arts topics, which are weighted similarly. Second, professors consider the general liberal arts to be relatively more important than students do and believe diversifying expansion of liberal arts education is necessary. Third, for the education to improve the basic vocational competency of students, which is operated as a liberal arts subject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junior colleges, the professors emphasize problem-solving ability while students want to focus more on how to manage resources.

Keywords : Liberal Arts Education, Junior Colleges, Current Status of Liberal Arts Education, Needs of Liberal Arts Education,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Corresponding Author : Jung-Youn Ha(Suncheon-Jeil College)

email: hajy9615@suncheon.ac.kr

Received February 11, 2022

Revised March 15, 2022

Accepted May 6, 2022

Published May 31, 2022

1. 서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사회 전체를 광범위한 영역에서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은 학생들에게 미래사회에 필요한 문제해결, 의사소통, 협력, 정보기술 활용 등의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역량중심교육이 미래의 직업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강조되고 있지만, 교양있는 인간 양성의 가치를 자칫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1,2]. 이런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의 교양교육은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자유 교양교육의 전통 위에 시대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인간과 사회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전문적 지식의 의미를 성찰하고 지혜로운 통찰력을 함양하는 교양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교육은 외국 대학과 비교했을 때 목적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목적과 내용이 부조화인 경우가 많다[3]. 이는 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현황 진단과 분석, 방향 설정 등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대학에서 교양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학이 추구하는 교육이념과 시대 상황을 고려한 교양교육 모형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교양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교육의 혁신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교양 및 전공과 비교과 교육과정의 교육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최근 대학교육의 방향이다[4]. 대학의 교양교육은 기본 지식과 인간, 사회, 자연, 예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5]. 개별 전공 분야의 전문성을 넘어 모두에게 요구되는 보편적 교육인 것이다. 대학에서 교양교육을 고전 인문교육, 자유 교양교육, 일반 인문교육 등으로 칭하고 있다. 따라서 교양교육은 폭넓은 학문을 추구하고 편견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고와 탐구 및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적 능력 배양에 목적을 두고[6], 모든 학생에게 실시되는 폭넓은 지식을 간 학문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인성 및 기본소양과 지적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7].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은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양교육의 강화가 요구된다. 짧은 교육 연한으로 직업교육과 현장교육이 강조되기 때문에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을 확대해야 하는 가는 계속되는 논쟁이다. 사실 전문대학은 그간 직업인

양성이라는 목표하에 교양교육을 소홀히 다루어 왔다[8]. 하지만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전문대학이 제시하는 전공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교양교육을 통해 고등교육기관 및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전문대학 교양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양교육의 목적이나 내용뿐 아니라 운영 방법과 교수 방식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어떤 요구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문대학은 교양이수학점이 적고[9], 교양전담 부서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교양교육 운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10]. 최근 전문대학 교양교육 모델 제안을 위한 운영실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독립된 교양교육 관련 조직을 구축하여 교양교과목 연구·개발 주체를 혁신해야 한다고 한다[11]. 이는 곧 전문 기술인 양성이라는 교육목표 하에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대학의 교양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이 역량기반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변화 또한 절실하다[12]. 그러나 전문대학의 짧은 수업연한, 전공 중심의 교육 운영체계, 교양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그리고 구성원들의 전문대학의 사회적 위상 및 역할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와 교양교육의 효용성에 대한 불신, 교양학점의 확대에 인한 전공학점의 축소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교양교육 강화에 있어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이 폭넓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반교양과 직업기초능력이 적절히 조화된 전문대학만의 교양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일반교양과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과 요구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재 대부분 전문대학에서 운영 중인 직업기초능력 요소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를 파악하여 향후 전문대학의 교양교육과정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운영 현황은 어떠한가?
2. 전문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 2-1. 일반교양의 중요성 인식 정도와 요구도는?
 - 2-2. 직업기초능력의 중요성 인식 정도와 요구도는?

3. 직업기초능력(10개 하위요소)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과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현황, 구성원들의 인식과 요구도를 분석하여 전문대학 교양교육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에 소재한 전문대학을 표집하였다. Table 1과 같이 표집상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전문대학을 5대 권역별로 나누고 비례유층 표집(proportionate stratified sampling) 방식을 사용하여 약 30%를 표집하였다. 권역별 표집 대학은 첫째, 입학정원이 많은 대학 순, 둘째, 2019~2021학년도 교양교육과정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대학, 셋째, 교양교육 현황을 일관되게 분석하기 위해 3년제 보건계열 학과와 교육계열 학과가 개설된 대학으로 하였다. 이 방식으로 42개 전문대학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2021년 8월 2일부터 8월 29일까지 조사하였다. 조사 내용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졸업 이수학점 대비 교양학점 비율과 교양과목의 구성 비율을 조사하였다. 교양과목의 구성은 일반교양과 직업기초능력, 기타 교양으로 구분하였는데 일반교양은 인성 및 기본소양과 지적 능력을 함양하는 과목, 직업기초능력은 NCS 분류체계의 직업기초영역으로 구성된 과목, 그리고 일반교양과 직업기초능력으로 분류가 어려운 교과목을 기타 교양으로 정의하였다.

Table 1. Number and ratio of sampling colleges by region

(Unit: number, %)

Area	Total number of colleges (A)	Number of sampling colleges (B)	Proportion of sampling colleges (B/A)×100
Capital	43	13	30.2
Chungcheong & Gangwon	24	8	33.3
Daegu & Gyeongbuk	22	7	31.8
Busan, Ulsan & Gyeongnam	20	6	30.3
Honam & Jeju	24	8	33.3
Total	133	42	31.7

다음으로 전문대학 교양교육에 관한 구성원들의 인식과 요구도를 분석하기 위해 Table 2와 같이 전남에 소재한 A 전문대학 소속 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1년 9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조사 내용은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전문대학생의 일반교양과 직업기초능력의 수준, 그리고 일반교양과 직업기초능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이다. 또한, 현재 교양교과목 선택의 다양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전문대학 특성상 직업기초능력이 교양교육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바, 10개 직업기초능력별로 중요도-실행도 분석 후, 4사분면 매트릭스를 통해 먼저 교육해야 할 직업기초능력을 확인하였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unit: persons, %)

Division		N	%	
Professor	Academic discipline	humanities and society	13	37.1
		natural science	8	22.9
		health	14	40.0
	Total		35	100
Student	Grade	1 Grade	61	36.7
		2 Grade	66	39.8
		3 Grade	39	23.5
	Academic discipline	humanities and society	84	50.6
		natural science	36	21.7
		health	46	27.7
Total		166	100	

2.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의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5대 권역별로 표집한 전문대학들의 교양학점과 교양교과목 구성의 평균값을 비교·분석한다. 이와 함께 대학별 교양교육의 목표, 관련 규정과 지침 등을 확인하여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기본 현황 등을 분석한다. 둘째, 전문대학 교양교육 현황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과 요구도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평균을 산출한다. 첫째, 전문대학에서 강조되는 직업기초능력의 중요도와 실행도를 IPA로 분석한다. IPA는 [13]에 의해 소개된 이후 교육학과 심리학, 경영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하는 방법으로 [14], 우선 해결할 사항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15]. 평가요소의 중요도와 실행도를 측정하고 주

요 속성을 4사분면에 표현함으로써 Fig. 1과 같이 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

importance	high	Quadrant 2: Concentrate here high importance low performance	Quadrant 1: Keep up good work high importance high performance
	low	Quadrant 3: Low priority low importance low performance	Quadrant 4: Possible overkill low importance high performance
		low	high

Fig. 1. Importance-Performance Matrix

3. 연구 결과

3.1 전문대학 교양교육 현황

전문대학 교양교육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체 졸업 이수학점 대비 교양이수학점 비율은 평균 7.3%로 분석되었다. 졸업 이수학점 대비 교양이수학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강원권(10.7%)이었으며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호남·제주권(1.8%)과 부·울·경

Table 3. The results of the basic survey on the operation status of liberal arts in colleges. (unit: credits, %)

Area	Liberal arts credits			Composition of liberal arts credits					
	Total graduate credits	Liberal arts credits	Ratio of liberal arts credits	liberal arts credits		Basic workplace skills credits		Others liberal arts credits	
				Health education department	Health education department	Health education department	Health education department		
Capital area	110.3	10	9.1	30 (29.1)	35 (38.9)	14 (13.6)	24 (26.7)	59 (57.3)	31 (34.4)
Chungcheon & Gangwon area	112.9	12.1	10.7	10 (21.7)	27 (41.5)	9 (19.6)	13 (20)	27 (58.7)	25 (38.5)
Daggu & Gyeongbu area	115.6	12	10.4	6 (14.6)	12 (34.3)	14 (34.2)	14 (40)	21 (51.2)	9 (25.7)
Busan, Ulsan & Gyeongnam area	110.7	5	4.5	9 (19.6)	11 (26.2)	10 (21.7)	19 (45.2)	27 (58.7)	12 (28.6)
Honam & Jeju area	111.1	2	1.8	8 (17.8)	6 (17.1)	14 (31.1)	12 (34.3)	23 (51.1)	17 (48.6)
Avg.	112.2	8.2	7.3	12.6 (20.6)	18.2 (31.6)	12.2 (24.0)	16.4 (33.2)	31.4 (55.4)	18.8 (35.2)

권(4.5%)이었다. 보건계열의 교양과목 구성에 따른 학점은 기타 교양학점 비율(55.4%)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직업기초능력학점 비율(24.0%), 일반교양학점 비율(20.6%) 순이었다. 교육계열 역시 보건계열과 동일하게 기타 교양학점 비율(35.2%)이 가장 높았지만 일반교양학점 비율(31.6%) 및 직업기초능력학점 비율(33.2%)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 없이 세 영역 모두 고르게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2 전문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3.2.1 교수

전문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과 요구도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교수들은 전문대학생의 일반 교양 수준에 대해 다소 낮은 편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전문대학에서 일반교양의 중요성은 다소 높다고 응답했으며, 일반교양의 확대 필요성 역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전문대학생이 교양교과목을 다양하게 선택하

Table 4. Awareness and demand for liberal arts education at junior colleges (professor) (unit: persons, %)

division	very negative	slightly negative	usually	slightly positive	very positive	total	M	SD		
general liberal education	General education level of junior college students	10	20	5	0	0	35	1.86	0.65	
	The importance of general education in junior colleges	2	8	6	19	0	35	3.20	0.99	
	The need to exp and general education in junior colleges	1	3	1	19	11	35	4.03	0.98	
Vocational Basic Skills	Vocational basic competency level of junior college students	1	21	12	1	0	35	2.37	0.60	
	The Importance of vocational basic skills in junior colleges	0	4	4	20	7	35	3.86	0.88	
	Necessity to exp and vocational basic skills in junior colleges		1	7	2	17	8	35	3.69	1.13
			2.9	20.0	5.7	48.6	22.8	100		
Diversity of liberal arts courses at junior colleges (student option)		8	15	7	2	3	32	2.34	1.16	
		22.9	42.9	20.0	5.6	8.6	91.4			

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직업기초능력 수준도 다소 낮은 편이라고 응답하여 직업기초능력 필요 요구도 역시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대학 교양교과목의 구성과 비율에 대한 응답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교수들은 일반교양과 직업기초능력을 비슷한 수준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학생들이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할 교양학점의 비율은 10~15% 정도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Table 5. Awareness and demand for the composition and ratio of liberal arts courses at junior colleges (professor)
(unit: persons, %)

division	①	②	③	④	⑤	total
㉔Composition of liberal arts courses	6	10	16	3	-	35
	17.1	28.6	45.7	8.6	-	100
㉕Liberal arts credit ratio	3	8	19	4	1	35
	8.6	22.9	54.3	11.3	2.9	100
㉖-①<General Liberal Arts> should be taught more heavily in terms of liberal arts education. ②Due to the nature of the vocational education of junior colleges, it is necessary to teach < Basic Vocational Competency> with greater importance. ③<General Liberal Arts> and <Basic Vocational Competence> should be taught at a similar level. ④In order to strengthen vocational education in junior colleges, the proportion of liberal arts education should be lower than that of the present.						
㉖-①Less than 5% of graduation credits ②5~10% of graduation credits ③10~15% of graduation credits ④15~20% of graduation credits ⑤20% or more of graduation credits						

3.2.2 학생

전문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요구도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학생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일반교양 수준, 일반 교양교육의 중요성과 확대 필요성은 모두 보통 수준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직업기초능력 수준에 대해 전문대학생들은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하였고, 직업기초능력의 중요성과 확대 필요성의 요구도가 다소 높다는 의견이 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교양교과목의 다양성이 보통과 다소 많지 않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Table 6. Awareness and demand for liberal arts education at junior colleges (students)
(unit: persons, %)

division	very negative	slightly negative	usually	slightly positive	very positive	total	M	SD
General education level of junior college students	2	21	103	35	5	166	3.12	0.70
	1.2	12.7	62.0	21.1	3.0	100		
General importance of liberal arts education in junior colleges	0	7	75	67	17	166	3.57	0.73
	0.0	4.2	45.2	40.4	10.2	100		
The need to expand general education in junior colleges	2	23	68	58	15	166	3.37	0.88
	1.2	13.9	41.0	34.9	9.0	100		
Vocational basic competency level of junior college students	1	13	104	41	7	166	3.24	0.68
	0.6	7.8	62.7	24.7	4.2	100		
Vocational importance of basic skills in junior colleges	0	5	61	71	29	166	3.75	0.78
	0.0	3.0	36.7	42.8	17.5	100		
Necessity to expand vocational basic skills in junior colleges	0	7	57	76	26	166	3.73	0.77
	0.0	4.2	34.3	45.8	15.7	100		
Diversity of liberal arts courses at junior colleges(student option)	18	44	72	29	3	166	2.73	0.94
	10.8	26.5	43.4	17.5	1.8	100		

교양교과목 구성과 비율에 대한 응답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학생들은 직업기초능력을 더 비중 있게 가르쳐야 한다는 요구도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할 교양학점 비율은 교수 집단과 동일하게 10~15% 정도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Table 7. Awareness and demand for the composition and ratio of liberal arts courses at junior colleges (students)

(unit: persons, %)

division	①	②	③	④	⑤	total
㉔Composition of liberal arts courses	19	55	83	9	0	166
	11.4	33.2	50.0	5.4	0	100
㉕Liberal arts credit ratio	9	56	69	25	7	166
	5.4	33.7	41.6	15.1	4.2	100

㉔, ㉕: Same as <Table 5>

3.3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분석

전문대학 교수들이 인식하는 전문대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분석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중요도 결과를 살펴보면, 전문대학 교수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한 직업기초능력은 의사소통능력(6.46) 이었고, 다음으로 대인관계능력(6.37), 문제해결능력(6.2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리능력(4.94)은 중요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실행도에서는 정보능력(4.37), 대인관계(4.06), 기술능력(3.86) 순으로 높게 인식하였고, 가장 실행도가 낮은 항목은 수리능력(2.97)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 자기개발 순이었다.

Table 8.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basic vocational competency (professor)

Vocational Basic Skills	Importance		Performance		Importance - Performance	rank
	M	SD	M	SD		
① communication skills	6.46	0.87	3.80	1.14	2.66	1
② numeracy	4.94	1.01	2.97	1.23	1.97	9
③ problem-solving ability	6.26	0.94	3.71	1.16	2.55	2
④ self development	6.03	0.91	3.80	1.37	2.23	4
⑤ resource management ability	5.86	0.96	3.71	1.34	2.15	7
⑥ human relationship	6.37	0.90	4.06	1.31	2.31	3
⑦ information ability	5.80	0.82	4.37	1.33	1.43	10
⑧ technical ability	5.91	1.11	3.86	1.22	2.05	8
⑨ organizational understanding ability	5.74	1.18	3.54	1.36	2.20	6
⑩ professional ethics	6.14	0.96	3.91	1.36	2.23	5

전문대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해 전문대학 교수들이 응답한 IPA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요도 전체 평균인 5.95점과 실행도 전체 평균인 3.77점을 기준으로 각 항목의 중요도와 실행도 점수가 어디에 분포하는지에 따라 지속 유지, 우선 시정노력, 낮은 우선순위, 과잉노력 지양의 4사분면 매트릭스로 제시하면 Fig. 2, Table 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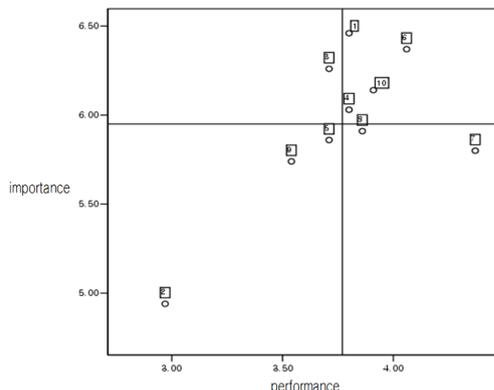


Fig. 2.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matrix of the basic vocational skills of junior college students perceived by college professors(I)

Table 9.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matrix of the basic vocational skills of junior college students perceived by college professors(II)

Quadrant 2: Concentrate here	Quadrant 1: Keep up good work
③problem-solving ability	①communication skills ④self development ⑥human relationship ⑩professional ethics
Quadrant 3: Low priority	Quadrant 4: Possible overkill
②numeracy ⑤resource management ability ⑨organizational understanding ability	⑦information ability ⑧technical ability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능력과 자기개발, 대인관계, 직업윤리는 1사분면(지속 유지)에 속하였다. 1사분면 요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실행도가 높아, 계속 좋은 성과를 내도록 유지해야 할 부분이다. 문제해결능력은 2사분면(우선 시정 노력)에 포함되었다. 2사분면에 해당하는 요소는 전문대학생들에게 중요한 항목인 데 비해 실행이 부족한 영역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수리능력과 자원관리능

력, 조직이해능력은 3사분면(낮은 우선순위)에 위치하였는데, 이들 항목은 중요도와 실행도가 모두 낮아 추가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무방한 항목이다. 마지막으로 정보능력과 기술능력은 4사분면(과잉노력 지양)에 속하는데, 이는 직업기초능력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미 실행도는 높아 투입을 줄여야 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전문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분석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중요도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한 직업기초능력은 의사소통능력(5.88)이었고, 다음으로 대인관계능력(5.83), 자기개발(5.7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리능력(4.83)은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실행도에서는 의사소통능력(5.05), 자원관리능력(5.02), 정보능력(4.98)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실행도가 가장 낮은 것은 조직이해능력(4.23)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가 가장 큰 것은 자기개발, 문제해결능력, 조직이해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0.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basic vocational competency (students)

Vocational Basic Skills	Importance		Performance		Importance - performance	Importance rank
	M	SD	M	SD		
①communication skills	5.88	1.14	5.05	1.12	0.83	6
②numeracy	4.83	1.23	4.46	1.10	0.37	10
③problem-solving ability	5.64	1.18	4.40	1.13	1.24	2
④self development	5.77	1.18	4.45	1.17	1.32	1
⑤resource management ability	5.70	1.17	4.65	1.23	1.05	4
⑥human relationship	5.83	1.26	4.80	1.13	1.03	5
⑦information ability	5.49	1.25	4.98	1.24	0.51	9
⑧technical ability	5.33	1.19	4.75	1.03	0.58	8
⑨organizational understanding ability	5.46	1.24	4.23	1.19	1.23	3
⑩professional ethics	5.70	1.22	4.97	1.06	0.73	7

직업기초능력에 대해 전문대학생들이 응답한 IPA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요도 전체 평균인 5.56점과 실행도 전체 평균인 4.7점을 기준으로 각 항목의 중요도와 실행도 점수가 어디에 분포하는지에 따라 지속 유지, 우선 시정노력, 낮은 우선순위, 과잉노력 지양의 4사분면 매트릭스로 제시하면 Fig. 3, Table 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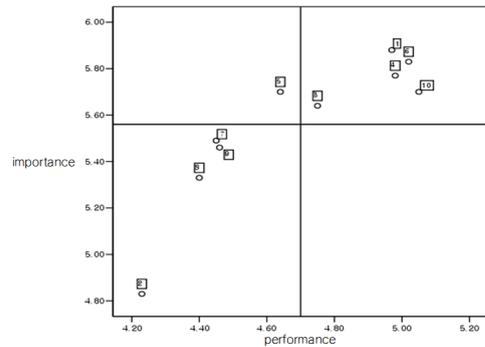


Fig. 3.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matrix of vocational basic skills perceived by junior college students(I)

Table 11.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matrix of vocational basic skills perceived by junior college students(II)

Quadrant 2: Concentrate here	Quadrant 1: Keep up good work
⑤resource management ability	①communication skills ③problem-solving ability ④self development ⑥human relationship ⑩professional ethics
Quadrant 3: Low priority	Quadrant 4: Possible overkill
②numeracy ⑦information ability ⑧technical ability ⑨organizational understanding ability	

직업기초능력에 대해 전문대학생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정도를 중요도-실행도로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 대인관계, 직업윤리는 1사분면(지속 유지)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사분면 요소들은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와 실제 실행도가 모두 높아 계속 유지해 나갈 부분이다. 자원관리능력은 2사분면(우선 시정 노력)에 포함되었다. 2사분면에 속한 요소는 전문대학생들에게 중요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실행 정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가장 우선하여 개선할 부분이다. 이어 수리능력과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은 3사분면(낮은 우선순위)으로 구분되었는데, 이 영역은 중요도와 실행도가 낮아 추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항목들이다. 마지막으로 4사분면(과잉노력 지양)에 속하는 내용은 도출되지 않았다.

4. 결론

본 연구는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현황과 전문대학 구성원들의 교양교육에 관한 인식, 요구도를 분석하여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방향 재설정에서 필요한 기초자료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초현황을 조사하였고, 전문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식과 요구도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 교양교육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체 졸업 이수학점 대비 교양학점 비율은 약 7.3%로 나타났다. 또한, 교양과목의 학점 구성은 직업기초능력과 일반교양, 기타 교양의 학점 비율이 유사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전문대학은 직업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일반대학보다 상대적으로 교양학점 비중이 적고, 교양과목도 직업기초능력 교과목이 포함되어 실질적인 일반교양 비중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전문대학 교양교육 현황 분석 결과는 전문대학 교양교과목의 편성 비율을 재조정하고, 교양교과목의 개발과 운영 전반을 혁신해야 한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9,11]. 미래사회에 필요한 사고력과 탐구력, 판단 능력 등을 배양하기 위해 일반교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에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은 전환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존의 전문대학 교양교육 운영 방식으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기 어렵다. 따라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명확히 하고 교양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과 운영 등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교수들은 전문대학생의 일반교양 수준이 다소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아울러 일반 교양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달리 전문대학생은 일반교양보다 직업기초능력의 중요성과 확대 필요성을 통해 요구도를 높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교수와 학생 모두 일반교양 교과목이 다양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문대학 교수들이 일반 교양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인된 것으로,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11]. 또한, 학생들은 직업기초능력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양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때 학생들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대학의 인재상과 핵심역량을 고려하여 교양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전공에 따라 중요한 직업기초능력을 도출하는 등 교양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영 측면에

서 깊이 있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전문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운영하는 직업기초능력의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를 교수와 학생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교수는 문제해결능력을, 학생은 자원관리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대인관계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높은 요구도와 낮은 '수학능력', 반면 높은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교육요구도와는 다른 결과를 보인다[16,17]. 하지만 직업기초능력의 경우 전공 계열과 조사시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바, 대학별로 주기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18,19]. 일반교양의 양적 확대를 위해 직업기초능력의 학점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직업기초능력 역시 필요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교양과 직업기초 교과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체와 학생들이 요구하는 직업기초능력 교과목을 전공 특성에 따라 정교하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전공별로 교수, 학생, 산업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과정 개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내용의 질과 교수자의 역량을 높여 실질적인 수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관심과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대학마다 핵심역량을 설정하여 교육하고 있는바, 대학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과 직업기초능력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발도 요구된다. 그동안 전문대학은 교양교육의 목표 설정부터 교육과정 설계, 교수 방법 다양화, 교육평가의 내실화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학의 자체 개선 노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분석과 설계, 개발, 실행, 평가가 지금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전문대학 교양교육 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운영 현황은 전국 단위로 조사하였으나, 인식도와 요구도는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A 대학에 한정하여 분석했다는 점이다. 또한, 3년제 교육계열과 보건계열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전문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요구도와 중요도를 단순 비교하지 않고 직업기초능력과 일반교양 교과목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는 점, 전문대학 교수와 학생 간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를 밝히고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전국 단위의 모든 계열로 확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심층 면담 등 질적 연구방법을 추가하여 교수자

와 학생 간 인식 차이의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C. D. Kang, "An analysis of the present condition and character for cultured education in Korean universities", *The Korean Educational Review*, Vol.18, No.2, 18(2), pp.83-107, 2012.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135366>
- [2] H. K. Jho, "The Changes of Higher Education and the Tasks of General Education according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Korean Association of General Education*, Vol.11, No.2, pp.53-89, 2017.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4776>
- [3] J. O. Lee, "A Study on the status Operating System of General Education and Improvements - Focusing on the case of the S University's Gener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11, No.5, pp.481-517, 2017.
<https://j-kagedu.or.kr/upload/pdf/kagedu-11-5-481.pdf>
- [4] Y. J. Woo, Y. J. Park, "Development of a Liberal Arts Curriculum for Introducing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15, No.1, pp.43-54, 2021.
DOI: <https://doi.org/10.46392/kjge.2021.15.1.43>
- [5]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http://konige.kr/index.php>
- [6] Y. K. Oh, J. R. Cho, "The status and Direction of Liberal Arts Education in the Posthuman era - Focusing on Korea University's common liberal arts class, Free·Justice·Trut", *Center for Literature and Language Education*, Vol.33, No.0, pp.7-28, 2020.
DOI: <https://doi.org/10.24008/kile.2020..33.001>
- [7] Y. J. Yun, Y. J. Lee, "Comparative study on the liberal arts curriculum of domestic and foreign universities to improve the university liberal arts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12, No.2, pp.259-286, 2018.
<https://j-kagedu.or.kr/upload/pdf/kagedu-12-2-259.pdf>
- [8] C. M. Jung, "Critical Review of College Liberal Arts Education", *Philosophy of Education*, Vol.73, No.0, pp.141-163, 2019.
DOI: <https://doi.org/10.22918/pesk..73.201912.141>
- [9] M. S. Choi,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Liberal Education at the Junior College According to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Korean Association of General Education*, Vol.11, No.6, pp.663-702, 2017.
<https://j-kagedu.or.kr/upload/pdf/kagedu-11-6-663.pdf>
- [10] H. J. Choo, "A Study on Developmental Direction of General Education in 2-3 years College", *The Korean Association of General Education*, Vol.7, No.4, pp.315-342, 2013.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9547>
- [11] W. J. Lee, "A Study on Current Operation and Perception of General Education in Colleges", *The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12, pp.197-226, 2020.
DOI: <http://dx.doi.org/10.24173/jge.2020.07.12.7>
- [12] S. H. Lee,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Competency-based Curriculum for College Liberal Arts Education - Focusing on the case of D College",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14, No.2, pp.233-246, 2020.
DOI: <https://doi.org/10.46392/kjks.2020.14.2.233>
- [13] J. A. Martilla, J. C. James.,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Vol.41, No.1, pp.77-79, 1977.
DOI: <https://doi.org/10.2307/1250495>
- [14] I. S. Yang, M. N. Jo,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s of Evaluation Level of Service Encounter Quality, Emotional Responses, Customer Satisfaction and Service Loyalty by Types of Restaura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Culture*, Vol.21, No.5, pp.524-535, 2006.
<https://kmbase.medric.or.kr/KMID/0665420060210050524>
- [15] S. S. Kim, J. M. Im, H. R. Lee, "Evaluation of an International Conference Using 「Importance-Performance」Analysis: A Case Study of ISR2001", *Kor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16, No.2, pp.257-274, 2001.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1953712>
- [16] B. H. Lee, S. H. Kim, "A Suggestion on College Curriculum through the Competencies analysis of College Graduat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11 pp.5448-5454, 2013.
DOI: <https://doi.org/10.5762/KAIS.2013.14.11.5448>
- [17] Y. H. Hwang, S. J. Park, "Educational needs analysis for key vocation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11, pp.595-603,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11.595>
- [18] S. R. Shin, "A Study on the Design of Liberal Arts Courses for Improving Vocational Basic Ability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 Focusing on the Case of KOPO", *Journal of Practical Engineering Education*, Vol.13, No.1, pp.81-93, 2021.
DOI: <https://doi.org/10.14702/JPEE.2021.081>
- [19] J. Y. Lim, J. Y. Yoon, "Educational Needs Analysis for Key Vocational Key Competency of Employees", *Corporate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Research*, Vol.22, No.3, pp.1-27, 2020.

최 진 숙(Jin-Sook Choi)

[정회원]



- 1999년 2월 :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학과 (유아교육석사)
- 2016년 8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 다문화, 특수교육

하 정 윤(Jung-Youn Ha)

[정회원]



- 2003년 2월 :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문학사)
- 2015년 8월 : 충북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5년 2월 ~ 2015년 8월 :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 2015년 9월 ~ 현재 :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교육행정, 고등교육, 성과관리

진 선 미(Seon-Mi Jin)

[정회원]



- 2002년 2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식품공학과 (공학석사)
- 2012년 2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식품공학과 (공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순천제일대학교 커피바리스타&외식조리과 교수

<관심분야>

공중요리, 전통병과교육, 바리스타

정 혜 영(Hye-Young Jung)

[정회원]



- 2004년 2월 : 인제대학교 의생명 공학대학 작업치료학과(작업치료 학사)
- 2012년 8월 :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재활과학과(이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순천제일대학교 작업치료과 교수

<관심분야>

작업치료학, 보조공학, 인지재활